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92호 [루체 제25070호] 주제 104 (2015)년 10월 19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공훈 국가 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합동 공연을 관람 하시였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일흔돐을 백두산대국
의 혁명적 대경사로 성대히
경축한 환희가 온 나라에
차넘치고 있는 속에 위대한
당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천만군
민의 드높은 혁명열, 투쟁열
을 백배해주는 음악포성,
노래포성이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공훈 국가 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합동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공연장소는 대를 이어
수령복, 당복을 누리는
태양민족의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 10월의 명절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
인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 나갈

관람자들의 혁명적 열의로
끓어번지고 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빛내여주시고 백두의 넙파 기상
으로 우리 조국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대강국의
위용을 높이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최통해동지, 김양건동지와 조선
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1만명 대공연
참가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당사상전선의 제일나팔수들인 공훈
국가 합창단과 모란봉악단 예술인들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창작창조기풍으
로 당과 혁명이 요구하고 인민이
지향하는 시대의 송가, 최후승리의
진군가를 새롭고 특색있게 형상하여
환희로운 공연무대를 펼쳐놓았다.

제일 큰 영광과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드리고 싶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충정
의 마음이 그대로 공연무대에 펼쳐
질 때마다 장내는 크나큰 격정으로
세차게 설레이였다.

2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합동공연을 관람 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공훈국가합창단에서 새로 창작형 상한 남성 3중창과 합창 《조선로동당찬가》, 남성합창 《빛나라 태양의 그 이름》, 《조선의 전군가》는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온 우리 당의 현명한 평도가 있어 이 땅우에 자주, 자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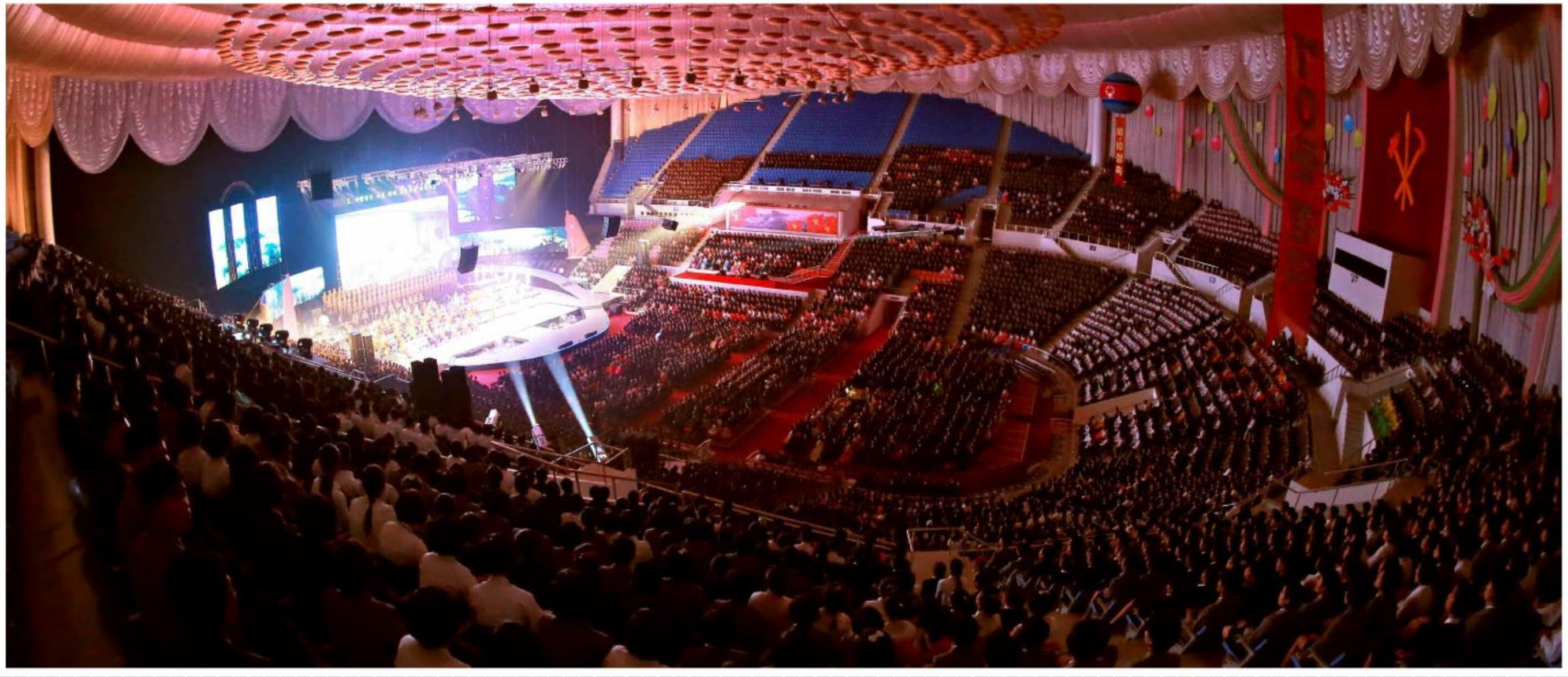
자위의 강대한 사회주의성세가 일떠서고 부강조국건설의 활로가 펼쳐지고 있음을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었다. 당시 바라고 인민이 좋아하는것이라면 열배밥을 채서라도 해내고 세계를 앞질려 끊임없이 새것을 개척해나가는 모란봉악단의 예술인들은 《우리의 김정은동지》, 《뵙고 싶었습니다》, 《그리움은 나의 행복》, 《운명의 손길》, 《우리는 당기를 사랑하네》,

《우리 당 영원히 따르리》와 같은 새 노래들을 훌륭히 창작형상하여 무대에 올렸다. 선군혁명령도의 날파 남들에 언제나 인민을 먼저 찾고 인민의 소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의 로고를 바쳐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운명의 하늘로 믿고 따르는 천만군민의 열화같은 흠토와 신뢰심을 승업하고 은은한 선율에 담은 노래들은

관람자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리었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평도가 있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대부대가 있기에 백두에서 개최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철의 진리를 새겨주는 공연은 남성 5중창과 남성합창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남성합창 《가리라 백두산으로》, 관현악과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로 최절정을 이루었다.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주시며 사회주의 강성번영의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오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의 천만리 길을 억세게 걸어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충정의 일편단심을 격조높이 노래한 공연은 종곡 《어머니생일》로 끝났다.

3 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합동공연을 관람 하시였다



2면에서 계속

우리식의 경음악과 판현악, 다양한 성악종목들의 배합으로 새로운 경지의 음악형상을 창조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또 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솟구치는 격정에 겨워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손을 저어주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인민에 대한 어머니당의 사랑과 정이 맥박치고 우리당을 따라 영원히 대를 이어 충정다해갈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는 출중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민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합동공연이 우리 당의 성스러운 70년사를 그대로 반영

하였다고, 창작가, 예술인들이 시대 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출연자들이 앞으로도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활동을 적극 벌려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은 당과 국가, 군대의 전반 사업을 령도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공연을 친히 보아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밀음을 안겨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아가는 선군혁명의 제일나팔수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칠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합동공연은 이 나라 천만자식을 한몸에 안아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에 대한 군대와 인민의 열렬한 신뢰심과 우리 당의 붉은 당기를 둑으로 삼고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폭풍처 나아가는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파시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청봉악단의 공연을 관람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창건
70돐경축 청봉악단
의 공연을 관람하시
였다.

인민국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예술공연을 보게 된
관람자들의 무한한
행복과 기쁨으로 하
여 격정의 대하를
이루었다.

우리당과 인민
의 최고령도자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
였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폭풍같
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부감
번영하는 이 땅우에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적으
로 환호하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이 답례하시였다.

김기남동지, 최룡해동지, 김양진동지,
조용원동지와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
단, 왕재산예술단의 창작가, 예술인들,
평양시내 예술인들이 공연을 보았다.

출연자들은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
의 당으로 존엄높은 우리당에 대한 찬가
들을 새롭고 특색있게 형상하여 환희로운
공연무대에 절쳐놓았다.

서곡 《당을 노래하노라》로 시작된 공



주체로 빛나는 불
폐의 혁명적당, 인민
을 위해 복무하며
천만군민의 절대적
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위대한 우리
당의 창건자, 건설자,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무대배경에
정중히 모셔질 때마다
열광적인 박수갈
채가 터져오르고 장
내는 뜨거운 격정에
휩싸였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성스러운 혁명
위업은 필승불패이며
당의 령도가 있는 한
우리 혁명의 최후승
리는 확정적이라는것
을 영광스러운 조선
로동당찬가, 백두산
대국의 전군가로 높
이 울린 공연은 총곡
『조선로동당
만세』, 『천리라도

연무대에는녀성2중창과 방창 『장군님
생각』, 트럼펫을 위한 경음악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 녀성중창 『사
랑하노라』, 『조선의 모습』, 경음악
『사회주의 지키세』, 녀성4중창과 방창
『영원한 메아리』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랐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여 오신
조선로동당의 품속에서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꽂퍼나는 영광스러운 로동
당시대를 감명깊은 예술적 화폭으로 펼쳐
보았다.

성스러운 붉은 기폭에 마치와 낫파 붓
을 아로새기고 오직 인민을 믿고 조국땅
우에 거창한 전변의 새 력사를 펼치며
백승만을 아로새겨 온 위대한 당.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참다운 삶의 은인, 위대한 당에 대한 인민
의 절대적인 신뢰심과 충정의 마음이 그
대로 송가로 되여 장내에 울려퍼졌다.

절세위인들의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
는 조선로동당의 70년사는 위대한
청년증시상의 혁사, 청년강국을 건설
한 혁사임을 뜨거운 격정속에 더듬어
보게 하는 녀성중창 『우리는 혁명의
계승자』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년대와 세기를 이어 천만심장을 주체의
넓으로 높뛰며 하며 우리 인민의 삶과 행
복을 더욱 활짝 꽂펴주는 어머니당을 노래
한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 『우리의 행군길』, 『어머니당
의 품』, 『어머니의 목소리』, 『그대는
어머니』,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등의
곡목들을 펼친 기악과 노래련곡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는 공연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새롭게 창조형상된 녀성3중창과 방창
『당이여 그대 있기에』, 녀성3중창
『친근한 우리 원수님』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백두의 대업을 이룩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운명의 하늘로, 삶의 태양으
로 모시고 따르며 오직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우리당을 총정다해 받들어
갈 천만군민의 철석같은 신념을 잘 보여
주었다.

독특한 성색융합의 안삼불과 금관악기
위주의 경음악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가수들의 맑고 개성적인 목소리, 특색있는
편곡과 연주형상으로 신비의 음악세계를
펼친 공연은 시종 관람자들의 경탄을
불러일으켰다.

만리라도』로 끝났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우러러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을 러쳐올리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의
나팔수, 사상적기수가 되여 당중앙이
의도한대로 백두산의 청진한 넋이 어리
여있는 악단의 이름을 예술활동실천으로
빛내이며 주체문화예술발전에 크게 이바
지해가는 청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
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앞으로도 천만의 심장을
드높은 혁명열, 투쟁열로 불타게 하는데서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
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상전과 주구가 펼쳐놓은 너절한 어리광대극

미국에 날아간 박근혜가 세계의 면전에서 오비마와 함께 헤딩축구를 반공화국 패해국을 펼쳐놓았다.

지난 17일 워싱턴의 백악관에서는 상전과 주구가 이마를 맞대고 영 악스타일로 불어민 그 무슨 「북에 관한 공동성명」이라는 대결쌍리리소리가 어지럽게 흘러나왔다. 박근혜가 집권 2년만 남짓한 사이에 오비마에게 네번씩이나 안겨든 것도 창피스러운 일이지만 그와 함께 「공동성명」이라는 것까지 조작하여 대결 악당을 무수히 뱉어버린 것 역시 가소롭기 그지없다.

남조선집권자는 미국 대통령과의 그 무슨 「북에 관한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이라는 대주제에서도 「북을 해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보다 강력한 제재」나 「북·인권」문제가 개탄스럽다. 그느니 뛰어 하는 악당을 늘어놓았다. 동족을 모해하고 해치기 위해 망해가는 짐안풀은 인증에도 없이 대양건너 미국에까지 찾아가 상전의 바지가 거리를 끌고온 박근혜와 심지노복의 온갖 노죽을 맞장구를 치운 오비마의 추한 행실은 살살개와 미친개의 가증스러운 낯짜를 범상시킨다.

결론부터 말하던 남조선집권자의 미국 행각은 천시대비 국행각, 동족대결구걸 행각이다. 이번에 상전과 주구가 불어던 나발들은 어느 것이나 대체로는 잡초들로서 세상사람들의 조소와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쓸웃음을 자아낸다.

남조선집권자는 이번에 그 무슨 「북에 문제 해결의 시급성」이나 「확고한 의지」나 하며 목에 피대를 세우고 미국과의 「동맹」강화와 국제적인 반공국립부공조를 폐지하였다. 우리의 해제문을 걸고 들어 「북쪽포기」를 여론화해보겠다는 것인데 수치도 모르는 식민지 노수민의 열매인 잠고대라고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조선적 대시정 실현의 노복이 되어 뚜렷한 주전도 없고 온전한 판별력도 없는 남조선집권자이고 보면 상전하고 물답방술법하고 있으니 대결에 미쳐도 참 더럽게는 미쳤다. 확실히 박근혜는 북남관계 문제는 고사하고 새상을 아기는 물정도 모르는 철부지계집에 가분명하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가? 우리 민족의 분별과 전쟁의 원흉인 상전 앞에서 「위험」이니 「도발」이니 하는 것을 함부로 외워댈 수 있겠는가?

조선반도해제 문제의 발발 근원과 비핵화의 기본 허지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에 대하여 시비 할 하통의 리유가 없다. 우리의 핵무력은 미국의 항상적으로 우리에게 향해 위협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민족공동의 보검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황시적인 핵 위협과 북침전쟁도 남핵에 불구하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터지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저위적 핵무력을 통해 차들의 도발을 억제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였기 때문이다. 그 덕을 다름 아닌 남조선도 입고 있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때도 명색이 집권자라고 자처하며 동네방네 들여다니며 입질을 하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긴 민족의 존엄이 어디에 있고 수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미국의 꼭두각시들이 그 초보적인 뇌치도 머리에 새겨질지 만무하다. 그러나 뛰어온 나아이에 어울리지 않게 상전 앞에서 앙장을 떨며 깡기를 부린 것이다.

남조선집권자가 그 누구의 「도발」이나 「위험」이니 하며 입에서 구멍이거나 뱀이 나가는지도 모르고 「조직적인 조직」이나 「내가를 치르게 될 것」이 아니하는 바위의 나발을 물고온 박근혜는 그 자체의 혐오를 자아낸다.

조선반도에서 도발과 위협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과 그와 암합한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도발과 핵위협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 대한 「수뇌부 타격」을 기정사실화 한 작전계획까지 짜놓고 핵선제타격을 공용화로 청장皓上하면서 세계가 경판과 부려움을 금지하고 있다.

남조선집권자는 그 누구를 험하기 전에 자신의 파초적 악행부터 물어보아야 한다. 그가 전력의 자리에 올라와 있다면 그것이 「북한판제에 『北극을 초래 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남조선집권자는 차기로는 남조선당국에 대한 「수뇌부 타격」을 기정사

한 무장을 펼쳐놓은 것뿐이다.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민주주의의 무덤, 인권의 불모지에서 가장 존엄을 잃은 우리 세계를 악의에 차서 헐뜯은 것은 하늘과 땅 사이로 명백하게 갈라지는 판이한 현실에 배아파난자의 비명에 지나지 않는다.

보고 배운 것처럼 전부 주한 것뿐이고 대결야당이 빠져나온 그에게 무슨 온전한 소리가 나오겠는가?

이제는 거덜이 날래로 난 그 누구의 「도발」과 「핵, 인권 문제」에 대해 상전의 노복으로 거친한 모습을 부지하고는 주제에 신성한 인권에 대하여 윤운 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을 웃기는 정치만화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체를 떠나가는

위대한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무한한 행

복과 긍지에 담겨 살며 더 밝은 레일에

복과 긍지에 담겨 살며 더 밝은 레일에